

# ‘우리는 “技術”로 승부한다’

기전플랜트팀 황재학 팀장

ESCO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주식회사 효성이 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와 대규모 빌딩으로의 사업대상을 전환하는 한편,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을 ESCO에 적극적으로 접목, CDM사업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술집적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친환경산업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전 플랜트팀 황재학 팀장을 만났다.

■ 박정미 기자(psn0304@yahoo.co.kr)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주식회사 효성의 중공업부문 기전플랜트팀 황재학 팀장의 말이다.

이 말은 곧 “ESCO사업이 취지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닌 기술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02년 판암 주공5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16개 아파트의 소형열병합발전을 설계, 시공한 효성은 사업 대상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바로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곳’으로의 이동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아파트소형열병합시장의 지나친 출혈 경쟁으로 인해 적격심사기준을 만들었다. 그만큼 시장질서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소형열병합시장이 커 보인다는 이유로 기술 없는 업체들이 난립, 터무니없는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형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당연한 수순대로 그 업체들이 제한한 에너지절감률이 나오리 만무하다.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이윤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ESCO사업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

황 팀장은 이러한 이유로 “계 값 받고 좋은 설비 공급하는 ESCO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화하고자 하는 업체가 사업을 그만두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불특정다수의 입주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의 기호를 일일이 충족시켜야 해 영업부터 입찰까지 불필요한 에너지소모가 많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효성은 아파트 사업을 축소하고 단기적으로 관공서, 공항, 병원, 백화점 등의 수요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화학플랜트, 시멘트, 제지공

장 등 에너지다소비산업체를 공략기로 했다.

특히 효성이 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는 기술집약설비를 운전할 전문인력을 고려했다.

### “기술 중심 ESCO”

효성의 ESCO사업은 중공업 그룹의 기전사업부문 플랜트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플랜트팀은 ESCO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화학장치, 산업기계, 자동창고 등의 사업부문을 맡고 있다.

이 중 ESCO사업은 소형열병합, 차압발전, 폐열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 99년 ESCO에 등록, 16개 아파트에 소형열병합발전을 공급했다. 또 울산동부한농화학 차압발전설비를 비롯해 고효율 인버터, 수축열시스템, 고효율 조명 등 300억원 규모의 ESCO사업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4,000kW급 LFC발전소 및 제주도 바이오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 행원, 포항, 대관령 등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효성은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요설비인 발전기, 전동기, 펌프, 변압기, 차단기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어 A/S지원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회사다. 말 그대로 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 상업운전, 유지보수까지 에너지절약토달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황 팀장은 진정한 에너지절약 토달솔루션의 의미를 강조했다.



▶▶ 대구 월성주공아파트



▶▶ 춘천석사아파트



또 그는 “자본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국내 최고의 전력설비 기술로 병렬운전 및 계통신뢰성을 보장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이용한 운전효율향상과 설비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효성중공업은 ESCO등록 이전부터 소형열병합발전 관련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와 ESCO 기술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황 팀장이 기술중심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력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와 1000kW급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을 비롯해 동 기관의 소형열병합발전소 관리, 제어 S/W, 1000kW급 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현장운전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기연구원과 200kW급 가스엔진 열병합시스템을 진행했고 패키지형 증기터빈 열병합시스템을 개발완료했으며 10kW급 초소형 가스엔진 열병합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효성은 풍력발전기개발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5년 안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업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한 CDM사업도 진행한다.

ESCO에 신재생에너지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효성이 개발한 풍력발전기는 750kW급으로 순수 자체기술로 설계제작됐으며 현재 대관령에 위치한 풍력발전실증 운전단지에서 시운전 중이다.

### “대기업역할의 중요성 인지”

“고유가 장기화, 화석연료고갈, 기후변화협약 등 ESCO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여건이 절정에 달했다.”

황 팀장은 이러한 때에 정부의 대기업 ESCO사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초 ESCO자금 추천에 있어 대기업 조기마감으로 많은 ESCO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심각한 문제인식을 나타냈다. ESCO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술력과 사후관리까지 토털솔루션을 제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본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지만 대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생각한다. 현재 대·중소기업을 구분한 자금추천제도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

또 황팀장은 업계의 ‘페어플레이’ 정신도 강조했다.



▶▶ 한국가스공사에 설치한 1000kW 가스터빈 열병합발전



▶▶ 부산수영이피트 바이오가스엔진

“기술력으로 제안하고 에너지절감액을 책임지고 보장했으면 한다. 우선 입찰하고 보자는 생각은 결국 ESCO사업 사양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무책임한 자세 아닌가? 제 값 받고 제대로 사업하는 풍토를 우리가 먼저 만들자.”

### 주식회사 효성 중공업 그룹

주식회사 효성은 1957년 설립 이래, 7000여명의 직원을 둔 연간 매출규모 5조원의 복합기업체다. 초기 화섬업체로 출발해 현재 섬유,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해외 30여개 현지법인과 해외지사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효성은 초기 사업이었던 만큼 섬유의 대명사로 통했지만 현재는 그 자리를 7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효성의 변압기와 차단기는 각각 57%, 71%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 등지로 확대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공업 부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 데는 해외시장에서의 역할도 한 몫 한다.

급격히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미국에서 잇달아 수주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2만5000MVA 규모의 변압기 공장 입찰은 물론 미국에서도 7000만 달러 규모의 변압기 사업을 따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주의 전력회사 BPA로부터 525kV급 초고압변압기 10대를 수주하는 등 올해 1억달러 이상의 수주가 예상된다. [e](#)



▶▶ 효성 울산공장